

1969년도의 학교도서관계

—창조적인 교육기반 조성의 입장에서—

朴 致 旭

<경북교육연구원 도서실장>

1. 머리말

창조적인 교육기반 조성의 입장에서 1969년도의 우리 도서관계는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다고 본다.

특히 도서관 국제회의를 우리가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은 곧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보다 도서관계의 밝은 전망을 내다 보는 중차대한 계기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의의 및 그 기능을 보아 교육현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끼고 학교 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창조적인 교육기반으로서 등장하게 됨은 당연한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은 창조적인 교육기반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은 발전 일로에 있으니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을 각 시도별로 분석 검토하여, 보다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2. 발전 일로에 있는 학교도서관

지식의 량이 가속적으로 늘어나 바야흐로 지식의 폭발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정된 인간의 두뇌로선 그 많은 지식량을 축적하기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콤퓨터 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마저 사라져 박지주의(博知主義)의 사상은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며, 지식의 전달 경험에만 중시되었던 백과사전식의 지식 편중 교육은 또한 중지부를 찍고, 학교교육은 자연히 지식량의 정선, 구조화 하여 생각하고 발견하는 창조적인 학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사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기반 조성의 일환으로서 학교 도서관을 다루어 가며 마련하고 있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우선 1969년도의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을 살펴 본다.

A. 1969년도 시도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표 1)

(제8회 전국학교도서관대회 현황보고서에 의함)

교별	도별 내역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국민학교	학교수	·	98	647	598	355	601	525	870	939	896	106 (118)	5,635
	설치수	·	75	216	148	159	178	110	697	939	354	31	2,907
	설치율	·	77%	33%	25%	45%	30%	20%	80%	100%	40%	29%	52%
중고등학교	학교수	·	75 (106)	289	166	116	166 (220)	191	264	359	307	33 (54)	1,966
	설치수	·	68	145	46	77	98	118	147	359	255	22	1,355
	설치율	·	91%	50%	28%	86%	59%	62%	56%	100%	84%	67%	68%
계	학교수	·	173 (204)	936	764	471	767	716	1,134	1,298	1,208	132 (172)	7,601
	설치수	·	143	361	194	236	276	228	844	1,298	609	53	4,242
	설치율	·	83%	38%	25%	50%	36%	32%	74%	100%	51%	38%	56%

※ ()는 병설교를 분리할 때의 수임

※서울은 보고 없음

※본 통계는 '69년 7월~8월말 통계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국민학교는 5,635개교중(서울을 제외한 통계임) 52%인 2,907개교가 학교도서관(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에 경북이 100% 전남이 80% 부산이 77%의 순위로 좋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북 강원등의 설치율은 부진한 실

정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는 작년(68년도)에 92%의 설치가 급년(69년도 제8회 전국학교도서관대회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엔 40%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의 폐지론(학급문고 대치=학급문고 6,004개 설치)의 영향이라고 보고 경남의 학교도서관 전망은 크

계 주목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966개교중 68%인 1,335개교가 학교도서관(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역시 경북이 100%, 부산시가 91%, 충북이 86%, 순위로 좋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 경기도가 비교적 설치율이 부진한 형편이다. 중등 역시 경남은 작년에 90%

였는 것이 84%로 하강(학급문고 대치=1,259개 문고 설치)되었음은 주목할 만 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학교도서관 설치는 7,601개교중(서울을 제외한 통계임) 56%에 해당하는 4,242개교가 학교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설치하여 학교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B. 1968년도와 1969년도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표 (표 2)

(제8회 전국학교도서관대회 보고서에 의함)

교별	년도	도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학 민교	1968	12	43	96	212	37	137	90	413	901	830	23	2,781	
	1969	—	75	216	148	159	178	110	697	939	354	31	2,907	
중학 고 등교	1968	76	56	75	60	73	102	77	86	324	205	22	1,080	
	1969	—	68	145	46	77	98	118	147	359	255	22	1,335	
계	1968	88	99	171	272	110	239	167	499	1,225	1,035	45	3,861	
	1969	—	143	361	194	236	276	228	844	1,298	609	53	4,242	
68년도에 비 한 증가비율			144%	211%	71%	214%	115%	136%	169%	106%	59%	117%	110%	

※ ①1969년도 서울특별시외의 보고가 없었음

②1968년도의 합계중 서울의 학교도서관수를 제외하였음

※ 본 통계는 '69년 7월~8월말 통계임

(표 2)에 의하면 68년도 보다 69년도에 도서관(실)의 증가는 국민학교의 경우 2,781개교에서 2,907개교로 그 도서관(실)수가 증가되었으며, 중등의 경우는 1,080개교에서 1,335개교로 증가되었으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의 증가를 본 셈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는 114%, 전남의 경우 69%가 더 증가 되었음을 볼 수 있다.

C. 1968년도와 1969년도 학교도서관 장서현황 대비표 (표 3)

시도별	학교별	내역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계		
			학생수	도서수	학생 1인당책수	학생수	도서수	1인당책수	학생수	도서수	1인당책수
서울	학교별	1968 1969	★ 36,693	14,638	0.4	★ 197,747	326,420	1.7	★ 234,440	341,058	1.5
			—	—	—	—	—	—	—	—	—
부산	학교별	1968 1969	264,536	125,545	0.5	111,466	172,362	1.6	376,002	297,907	0.8
			273,532	503,242	1.8	124,623	321,538	2.6	398,155	824,780	2.1
경기	학교별	1968 1969	573,793	874,531	1.5	119,356	221,409	2.2	693,149	1,095,940	1.6
			568,429	879,643	1.5	146,901	305,778	2.0	715,330	1,185,421	1.6
강원	학교별	1968 1969	239,489	308,583	1.3	47,391	104,171	2.2	286,880	412,754	1.4
			364,003	186,328	0.5	80,905	72,117	0.9	444,908	258,445	0.6
충북	학교별	1968 1969	★ 57,654	40,018	0.7	56,929	146,266	2.6	114,583	186,284	1.6
			307,836	143,768	0.9	61,350	195,012	3.2	369,186	338,780	0.9
충남	학교별	1968 1969	558,050	277,649	0.5	113,893	182,286	1.6	671,943	459,935	0.7
			567,495	474,063	0.8	134,177	233,268	1.7	701,672	707,331	1.0
전북	학교별	1968 1969	★ 147,859	99,370	0.7	★ 62,951	127,252	2.0	210,810	226,622	1.1
			490,015	139,511	0.3	109,230	266,616	2.6	599,245	406,127	0.6
전남	학교별	1968 1969	519,008	516,862	1.0	107,388	235,596	1.9	626,396	752,454	1.2
			791,673	657,319	0.9	171,349	327,738	2.0	953,022	985,057	1.0
경북	학교별	1968 1969	827,365	764,137	0.9	197,156	413,854	2.1	1,024,521	1,177,991	1.2
			841,345	1,009,614	1.2	235,735	617,846	2.6	1,077,080	1,627,460	1.5
경남	학교별	1968 1969	582,600	1,494,019	2.5	136,443	601,169	4.3	719,043	2,095,188	2.8
			597,420	1,511,316	2.6	152,287	633,796	4.5	749,707	2,145,112	3.4
제주	학교별	1968 1969	59,006	30,166	0.5	21,482	37,043	1.7	80,488	67,200	0.8
			61,071	31,603	0.5	24,032	39,179	1.6	85,103	70,782	0.8
계	학교별	1968 1969	3,866,053	4,545,518	1.1	1,172,202	2,567,815	2.1	5,038,255	7,113,333	1.4
			4,862,919	5,436,397	1.1	1,240,589	3,012,888	2.4	6,103,508	8,448,285	1.4

★표는 학교도서관 설치교 학생수

(제8회 전국학교도서관대회 보고서에 의함)

※본 통계는 '69년 7월~8월말 통계임.

(표 3)에서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을 분석해 보면 68년도의 전국 총장서수가 7,113,333권이었던 것이 69년도에는 8,448,285권으로 증가된 셈이나 학생 1인당 평균 1.4권에는 변동이 없다. (학생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도서관도 그 정도의 증가뿐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경우는 학생 1인당 평균 1.1권, 중등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2.4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것도 시도별로 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경남이 1인당 평균 2.6권(작년에 2.5권)으로 제1위에 속하며 중등의 경우 역시 경남이 4.5권(작년에 4.3권)으로 단연 수적으로 앞서고 있다.

문제는 수적으로는 통계로서 파악이 되나 질적으로 우열이 파악되지 못하였으니 과연 그 질에 있어 학습 및 교양에 어느 정도 유익하고 값진 도서이겠는가?

D. 사서교사 및 기타 연수 현황 (표 4)

시도별	내역	사서교사 과정이수자	사서교사 T.O배정	도서관관계 연수현황(1969년도)
서울특별시			4	
부산시	147명	3		○국민교 교사(80시간—150명) ○전교사 자체연수(60시간)
경기도	18	3		○국민교 교사 연수회(36시간—150명)
강원도	50	2		○교원 재교육시 도서관 개론 과정 삼입(10시간)
충청북도	14	2		○학교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83명) ○사서 담당교사 실무강습(24시간—70명)
충청남도	39	3		●중등학교 교감 세미나(100명) ○중등 사서교사양성강습(120시간—50명) ○중등학교 사서교사세미나(90명) ○초등 사서교사양성강습(120시간—100명) ○초등 장학사 세미나(20명) ○초등 교장 세미나(80명)
전라북도	50	3		○국민학교 교사강습(60시간—100명) ○중등학교 교사강습(60시간—150명)
전라남도	68	4		
경상북도	162	4		○사서교사 양성강습(240시간—30명) ○학교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2회—125명) ○시군 학무과장 학교도서관 세미나(29명) ○중등학교 사서교사 도서관 세미나(95명)
경상남도	215	4		○전교사 자체연수(60시간)
제주도	14	1		
계	777명	33명		

※서울의 통계는 없음

※본 통계는 69년 7월~8월말 통계임

사서교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하도록 도서관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8년도에 문교부에서 배정된 전국 33명의 T.O.외는 아직 더 증원이 없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 교육 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결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으며 더욱 연차적으로 그 T.O.를 증원해야 할 것인데 1969년도에는 그 실적이 없으니 이를 타개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도 별로 사서교사양성강습 그리고 각종 학교도서관 연수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음을 볼 때 학교 도서관의 성장 발전이 여실히 들어 나고 있다.

특히 사서교사 양성에 있어서는 도협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시도 교육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끈기있게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1969년도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실의 하나는 도서관 연수회 및 세미나 개최라 하겠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에서는 학교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 및 교감, 장학직의 도서관

연수회 개최는 그 성과가 다대 하였으며, 부산시, 경상남도의 전교사에 대한 도서관을 위한 자체 연수(60시간)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일선교사들이 예의 없이 학교도서관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할려는 의도는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하겠다. 그의 강원도와 같이 교원 재교육시 도서관 개론 과정을 10시간 삼입하였다는 사실, 경기도 전라북도와 같이 국민학교에 중점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해시키는 것 등 좋은 시책 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도서비 예산 문제

각 시·도의 도서비 예산은 구구함을 엿볼 수 있는데 대개의 시·도에서는 자율적경비에서 도서비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의 성장발전에 밑 바탕이 되는 도서비 예산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해 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시도 별 도서비 예산은 차이가 있으나 모두 도서비 산출 근거가 막연한 것 같으므로

70년도 부터는 도서비 책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근거하에 책정토록 강력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본다. 선진국 학교 도서관의 年 도서증가 기준은 대체로 1년에 학생 1인당 0.5권 증가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에도 年 1인 0.5권 증가를 목표로 해서, 도서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서비 예산 현황으로 보아서는 그 목표와는 상반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69년 6월말 현재 대한 출판 문화 협회 조사부 통계에 의하면 69년 1월부터 6월말 까지의 출판된 도서의 평균 가격이 517원 21전이라고 되어 있고, 68년 6월말 현재는 412원 40전이라고 하니, 68년 6월말 부터 69년 6월말까지 만 1년만의 도서 단가가 25%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비추어 불배 70년도에 특별한 물가정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도서의 가격도 25%선 정도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서의 평균 단가는 646원 51전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도서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강력한 시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실정은 어떨나 하면 도서비라고 해서 100% 전액을 도서만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서비중 도서 구입이 55%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도서관 협회의 시안은 80%가 도서구입

에 해당토록 되어 있으니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면 학생 1인당 도서비가 적어도 70년도에는 1,200원 정도 되어야 1인당 0.5권 확보가 가능하고 제반 도서관 운영비가 충당될 줄 믿는다(100% 중 55%가 도서 구입비이고, 45%가 신문, 잡지, 구입, 제본비 기타 도서관 활동비로 쓸 수 있다) 이러한 도서비를 자율적경비 및 별도 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3) 맺는 말

1969년 한 해 동안의 학교도서관계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교육방법의 개선을 수없이 부르짖어 왔고, 또한 부르짖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 및 그를 위한 효과를 생각할 때 역시 학교 도서관이 그 중핵적인 역할을 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점점 뿌리 박고 있음을 교육현장의 경험 및 연구를 통해서 실증되어 감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적인 교육기반 조성 없이 시대가 요청하는 산 교육은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기에 보다 더 분발하여 이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겠고 새로 맞이하는 70년대를 우리의 것으로 장식하는 성실한 의욕과 탐구하는 자세로서 더욱 힘써 나아가기를 바라며 줄필을 맺는다.

(17面에서 繼續)

라. 中央行政圖書室

지난 1968年 11月 20日 字로 大統領令 第3640號로 中央行政圖書室 設置令이 公布되고 今年 1月 4日 始務式을 가지므로써 發足되었다. 이 圖書室은 總務處長官 所屬下에 2個課(管理課, 司書課)로 構成되어 있으며 前 中央公務員教育院 圖書室이 母體가 되었다. 豫算이 確保되는대로 오는 71年度까지 年次計劃에 依하여 1億원 규모로 新政府廳舍의 構內에나 新築하게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同 圖書室은 現在 建立中에 있는 新政府廳舍가 竣工되어 各 部處의 移轉과 더불어 各 部處의 政策立案 및 行政實務 遂行에 必要한 모든 行政情報資料센터의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結 論

以上에서 1969年度의 特殊圖書館界를 充分한 調査 없이 살펴 본 까닭에 特殊圖書館界의 全般的인 發展相, 變化問題點 등에 대한 個個 圖書館의 活動狀況을 제대로 紹介 못한 것을 遺憾으로 生覺한다. 그러나 統計上에 나타나는 數字에서 보거나 特殊圖書館大會에서 討議된 內容이나 圖書館人들의 活動을 보면 每年 많은 發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即 館數의 增加, 豫算, 職

員의 增加, 機構의 擴張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아직도 特殊圖書館 129個館이 全般的으로 機構 組織에 있어서나, 豫算 入員面에 있어서나, 또한 奉仕活動面에 있어서 滿足할 만한 發展과 地位向上은 遙遠한 現實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點 個個 圖書館에 있어서는 專門職 司書의 많은 努力과 活動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機關의 長 또는 國家機關은 이들 專門職 司書의 確保는 勿論 그들이 그 圖書館 發展에 專念할 수 있도록 人事面에서나 待遇面에서 最大限의 保障이 있도록 制度의 改善이나 앞으로의 方向을 設定하여야 할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特殊 圖書館界의 그룹(Group) (또는 細分하여 機能이 같은 圖書館 그룹)은 共同目的 共同問題 등 圖書館 活動 全般的인 事項을 協議하고 解決할 수 있도록 相互 協力하는 精神과 積極的인 共同活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個個 圖書館에 있어서나 特殊圖書館 全體에 있어서 效果의인 奉仕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 機關의 發展에 寄與하는 特殊圖書館界의 使命을 다하도록 하는데 더욱 努力과 協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